

[오피니언]

테마칼럼

이성체제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칼럼

5·31 지자체 선거 감상기



김 어 준 (편지일보 총수)

민주세력 대연합이라. 아직도 이 구호가 호소력 있고 그 깃발 아래 모일 사람들 남아 있다...

1. 박근혜대표피습사건. 그 장면, 섬뜩했다. 그리고 당한 그녀, 참, 안쓰러웠다. 그렇잖아도 마음 짠하게 하는 재클린적 풍모의 그녀, 이 사건으로 잔다르크까지 되어 버린다.

2. 피습사건에 대한 한나라 대응. 다행히 그녀 회복도 빠르고 또 한나라 압승 했으니 이것도 사실대로 말해두자.

1. 5·3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제 새로이 임기가 시작돼 지자체의 행정과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몸 바쳐 일하게된 공인으로 각자 남다른 각오와 포부가 있을 것이다.

2. 5·3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제 새로이 임기가 시작돼 지자체의 행정과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몸 바쳐 일하게된 공인으로 각자 남다른 각오와 포부가 있을 것이다.

3. 5·3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제 새로이 임기가 시작돼 지자체의 행정과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몸 바쳐 일하게된 공인으로 각자 남다른 각오와 포부가 있을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5·31 민심은 국민생활 편하게 해달라는 것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이 사퇴하는 등 5·31 지방선거 후폭풍이 거세다. 지도부 구성을 둘러싸고 계파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제는 경제와 민생 살리기가 국정의 중심 축이 되어야 한다. 최금들여 각종 경제지표가 심상치 않다. 경상수지가 2월부터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광주·전남은 민주당에 새 소임 요구한다

이번 선거에서 회생의 계기를 잡은 민주당이 정계개편 정국을 앞두고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한화갑 대 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반성을 먼저 한 뒤, 고건 전 총리를 포함한 모든 중도개혁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한다고 말했다.

자들에게 민주당은 중도개혁세력의 범 통을 잇는 전통적 지지정당이면서도 DJ시절처럼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란 얘기가.

기고

양 승 찬



지난달 30일 막을 내린 '한국 국제 아트페어(KIAF)'는 외국화랑 51개와 국내 화랑 99개 등 150여개의 화랑이 참여해 세계미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술이벤트였다.

부러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아트페어에서 거둔 성과는 상업화랑의 불모지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 광주 작가들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한국국제아트페어(KIAF)'를 다녀와서

흐름이 추상미술 또는 미니멀 아트계열에서 구상성 있는 미술 형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미니멀 아트 위주의 추상미술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형태는 단순화 시키는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비해 수적인 열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외국 화랑관계자들이 광주비엔날레 개최 최고시인 광주에서 상업화랑이 많지 않은 이유를 집요하게 물었지만 마땅한(?) 대답이 없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나인갤러리 대표)

기고

정 순 열



5.3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제 새로이 임기가 시작돼 지자체의 행정과 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몸 바쳐 일하게된 공인으로 각자 남다른 각오와 포부가 있을 것이다.

굳이 자곡산만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 태초부터 인류가 주식으로 선택한 먹거리의 첫번째 기준은 영양가도 아니고, 맛도 아니라 바로 몸에 해롭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급식과 지자체의 역할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시민단체와 일부 지자체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의 무사 사용을 규정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려 했지만 WTO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은 농민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하는 길 이 된다. 학교급식의 우리농산물 사용과 함께 '정크푸드(junk food)'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분실한 한약 되돌려준 택시기사에 감사

어머니에게 한약을 지어드리고 터미널까지 가는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시골에도 착할 시간에 맞춰 전화를 드렸는데, 한약을 택시에 넣고 내렸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어떻게 이 곳으로 가져왔는지를 물었더니 택시 안에서 노인 부부가 아들이 사는 아파트 동과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이다.

▲장희희·목포시 옥암동

생활속 에너지 절약으로 고유가 시대 극복하자

유가가 배럴당 70달러까지 오르고 앞으로 계속 상승세로 이어져 100달러가 멀지 않다는 고유가 시대다.

록 정부가 앞장 서야 한다. 필요한 만큼만 쓰는 자세도 갖춰야 한다. 또 태양열 자동차나 전기자동차 기타 에너지 자동차 등 대체 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고, 석유 생산국과의 외교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확보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일동·나주경찰서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권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독자투고를 기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